



관덕정

2016년 12월 27일(통권 제78호)

41967 대구광역시 중구 관덕정길 11(남산동) 전화 : (053)254-0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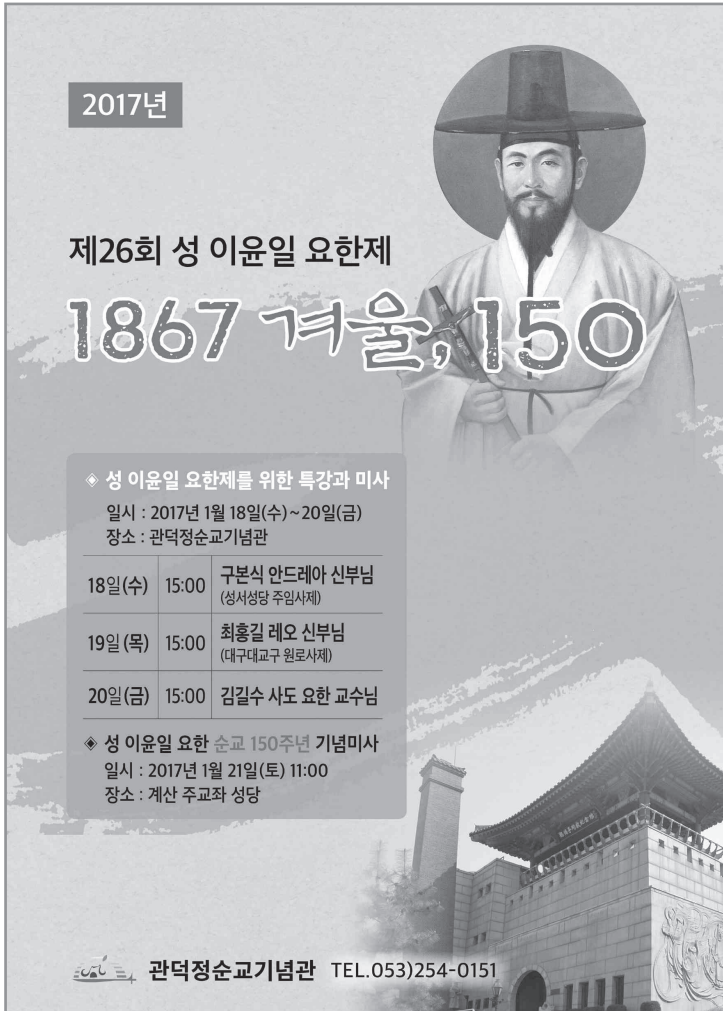
팩스 : (053)253-0666 e-mail : daegusaint@gmail.com

홈페이지 : <http://www.daegusaint.org>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제26회 성 이윤일 요한 축제에 초대합니다.



2017년

제26회 성 이윤일 요한제

1867 겨울, 150


◆ 성 이윤일 요한제를 위한 특강과 미사

일시 : 2017년 1월 18일(수)~20일(금)
장소 : 관덕정순교기념관

18일(수)	15:00	구본식 안드레아 신부님 (성서성당 주임사제)
19일(목)	15:00	최홍길 레오 신부님 (대구대교구 원로사제)
20일(금)	15:00	김길수 사도 요한 교수님

◆ 성 이윤일 요한 순교 150주년 기념미사

일시 : 2017년 1월 21일(토) 11:00
장소 : 계산 주교좌 성당

 관덕정순교기념관 TEL.053)254-0151

1867 겨울, 150

2017년은 교구 제2 주보이신 이윤일 요한 성인이 순교하신 지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제26회 성 이윤일 요한제는 성인의 순교 150주년을 기념하여 “1867 겨울, 150”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마련합니다. 우리 교구의 순교 역사를 되돌아보며 주보 성인을 기억하는 일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신앙을 키워나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의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I. 성 이윤일 요한제를 위한 3일기도 특강과 미사

일 시 : 2017년 1월 18일(수) ~ 20일(금)

장 소 : 관덕정순교기념관

일 정

날 짜	시 간	특 강
1월 18일(수)	15:00	구본식 안드레아 신부님(성서성당 주임사제)
1월 19일(목)	15:00	최홍길 레오 신부님(대구대교구 원로사제)
1월 20일(금)	15:00	김길수 사도 요한 교수님

II. 성 이윤일 요한 순교 150주년 기념미사

일 시 : 2017년 1월 21일(토) 오전 11시

장 소 : 계산 주교좌 대성당

「하늘가는 밝은 길」을 읽고

김 효 진(수산나) 수녀

두류성당

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겠습니까?

사람이 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하느님을 섬기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며 천국을 얻는 일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큰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면 허송세월을 하는 것이니,

태어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순교복자 김종한 안드레아 -

작년 관덕정 순교기념관에 순례를 갔을 때, 입구에 스탬프 찍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김종한 안드레아 순교자의 편지 내용이었다. 그 내용이 참 좋아서 책상 위에 붙여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읽어보곤 한다.

순교자!

듣기만 하여도 가슴 설레는 단어이다.

대구에는 참 많은 순교자분이 계신다. 이렇게 많은 순교자분과 함께 믿음살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느님의 크신 은총임을 깨닫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며 대구 순교자들의 삶을 되짚어 보고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하고 감사하다. 또한, 그분들의 삶이 내 마음 안에 뜨겁게 새겨져 있음에 더욱 감사하다.

하늘가는 밝은 길, 순교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길은 무엇일까?

길었던 박해의 시간 - 을해박해, 정해박해, 그리고 병인박해까지 - 그 안에 순교자들의 삶과 사랑과 신앙이 가득 담겨 있음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

느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분들의 가슴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생각되었다. 책을 통해 순교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마음에 많이 와 닿았던 분은 내 책상 위에 있는 편지를 쓰셨던 김종한 안드레아 순교자였다. 그 내용을 볼 때 마다 진정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해 주었다.

옛날의 교리서였던 '천주교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다.

문 :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냐?

답 : 사람이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났느니라.

그랬다. 사람이 세상에 난 이유는 하느님을 섬기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김종한 안드레아 순교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또한 그 내용을 용감하게 말씀하고 계셨다. 모든 순교자는 그랬다. 하느님만이 만군의 주님이시오, 공경하고 따라야 할 대상이라고... 그래서 그분을 믿기에 현세의 고통과 시련은 참을 수 있다고 말이다. 그분들은 모두 그렇게 믿으셨고, 그렇게 사셨고, 또 그렇게 죽어갔다.

이것이 바로 우리 순교자들이 증거 했던 하느님 사랑이었다.

순교자들의 한결같은 마음!

현재의 눈으로 본다면, 그들의 삶은 가난과 굶주림, 박해의 두려움, 잡혔을 때의 고문과 고통, 비참한 감옥살이, 그리고 죽음...하나같이 어둡뿐이다. 그러나 어떻게 그 시간과 마음들을 충실하고 오롯이 봉헌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 순교자들은 뛰어난 교리 지식도 없었고, 사제나 수도자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사성제를 매일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또한 나약하기도 했고, 배교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끊임없이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께로 돌아서고, 앞으로 달려갔던 모습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과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하루하루 충실히 기도하고, 하느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희망하였던 것이다.

신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으며, 낙심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며 기도하였다. 신앙과 일상의 삶이 다르지 않음을 알고, 날마다의 순교를 기쁘게 받아들였던 충실한 준비가 순교를 가능하게 하였으리라. 이것이 믿음이며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비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허물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니십시오. (필리피서 2장 15-16)**

순교자분들은 우리에게 하늘가는 밝은 길을 알려주셨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앞을 밝게 비추어 세상을 환히 밝히셨다. 그리고 그 밝은 빛의 길로 우리가 다시 하늘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다.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셨던 순교자들처럼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바탕으로 감사와 비움과 나눔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또한 순교자의 후손으로서의 삶이다.

믿음은 결단이다.

믿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충실하게 지켜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하느님의 뜻을 지극정성으로 살아간다면 나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순교자들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대구의 순교자들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여,
저희를 순교정신으로 살게 하소서!**

명동에서 남천까지 730859

정 연 환(빅토리노)

윤일회

730,859보, 내가 18일 동안 걸었던 걸음 수다. 지난 8월 15일 성모 승천대축일에 시작해서 9월 2일까지 서울 명동성당에서부터 부산 남천성당까지 도보순례를 했다. 첫 걸음은 명동 주교좌 성당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참례였다. 미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염수정 추기경님을 만날 수 있어서 순례 지향을 말씀드리니 추기경님께서 무사히 잘 마치기를 기도드리다고 하시며 응원해 주셨다. 추기경님의 축복을 받고나서 기쁜 마음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남산을 거쳐 동작대교를 건너 사당역까지 걸어가면서 응원 나왔던 큰딸, 사위, 고향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걱정도 해주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현실이 허락하지 않아서 나를 혼자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어렸다.

작년에는 인천 아라 뱃길에서 부산하구 뚝까지 혼자서 자전거로 여행했는데 이번에는 기회가 되어 친한 고등학교 친구를 수원에서 만나 황간까지 8일 동안 함께 걸었다. 같이 걸어가는 친구가 있어 든든하기도 했지만 서로 성향이 달라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친구는 빠른 속도감 있는 운동을 즐겼지만 나는 지나가는 길에 지인들도 만나고 성당도 방문하고 해서 친구는 불편해했다. 매일 30km이상을 걷다보니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머무르고 싶은 곳에서 쉴 수도 없었다. 한참 더운 때라 매일 오후 서너시에는 34도에서 36도 사이의 뜨거운 날씨도 견뎌야 했고 날이 갈수록 발가락은 부어오르고 발톱은 흔들렸다. 이렇게 힘겨운 도보 중에 친구는 다른 사정이 있어 집으로 가고 나는 혼

자 추풍령을 지나게 되었다. 고통이 따르는 행동은 혼자일 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며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성지와 성당도 방문하며 더 알찬 순례를 만들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하루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급속히 빠르게 자본주의에 물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고 아니면 자식을 낳지 않으려 하고 또 노령화가 심해지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 10년, 30년 후 우리나라 모습은 어떨까? 우리 손자 세대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지금부터라도 깊이 고민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다문화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교구 생명사랑 나눔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작년 자전거 여행 때는 1구좌에 63,300원으로 정해 가족들, 지인들, 후배들의 도움으로 생명사랑기금 조성에 보탬이었는데 올해는 1구좌에 50,000원으로 정해 기금 조성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후원으로 계속 걸을 수 있었고 생명사랑 나눔운동을 더 많이 홍보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김천을 지나서부터 학교 동기와 후배들이 2박 3일 동안 동행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팔달교에서 부터는 마중 나온 아내와 함께 걸어서 관덕정으로 갔다. 이윤일 성인께 인사를 드리고 관덕정에서 기다리고 있던 윤일회 회원들과 성모당으로 가서 대주교님을 만나 뵈었다. 마음 속 가득히 기쁨이 넘실대는 순간들이었다.

대구에 도착한 이튿날에는 아내와 아들부부와 손자 의빈이와 함께 성모당에서 출발해서 팔조령까지 걸었다. 다음날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도 오랜 친분이 있는 신부님께서 함께 걸어 주셨다. 이렇게 곳곳에서 지켜봐주고 함께 걸어주고 음식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의 친절과 배려가 나를 계속 걸을 수 있도록 해준 것 같다. 아내와 함께 걸은 지 3일째 되던 날 삼랑진 오순절 평화 마을에 잠깐 들러 기도를 하고 내려오던 길이었다. 낙동강 강가를 걸으며 아내의 손을 잡고 물었다. “여보! 마리안나씨! 솔직히 말해 주오! 어린 나이에 철부지 남편에게 시집와서 벼락대신이신 시아버지와 층층시하(4남매) 에 시집살이하면서 언제 내가 가장 밍고 힘들었소?” 아내는 말을 아끼는 듯 잠시 가만있더니 이렇게 얘기했다. “여보! 영감! 이제와 무슨 말을 한들 소용 있겠어요. 강바람과 강물 속에 다 흘러보

내 기억이 없네요.” 나는 한 대 얻어맞은 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설레었다. ‘아! 남은 우리 삶이 헛되지 않도록 사랑으로 채워나가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깊이 새기는 하루였다. 이렇게 우리 부부는 부산 만덕터널 언덕과 사직구장을 지나 제법 높은 횡령산을 함께 걸었다. 횡령산에서 조금 힘겨워하는 아내를 달래가며 목적지인 남천동 주교좌 성당이 가까워 올 때 굽이굽이 지나는 산언덕과 저 멀리 눈에 보이는 바다는 나의 가슴을 뭉클하게 흔들고 적시고 있었다.



‘높고 높은 곳에 쉬고 계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많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올봄에 어머니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셨을 때 나의 불효 때문인 것 같아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팠다. 나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께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런 마음도 도보 순례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목적지에 다다르니 부모님 생각이 더 간절했다.

남천성당에서는 장 신부님과 박사과정을 함께 공부하는 하 목사님, 아들 내외, 손자 의빈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중을 나온 사람들과 인사와 포옹을 나눈 후 성당에서 조배를 드리며 18일간의 도보순례를 마무리했다.

이 순례는 나이 일흔에 이르러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고 남은 삶을 어떻게 가꾸어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준 소중한 순례였다. 순례 도중에 느낀 환희와 성취감은 나를 다시 일깨워주었다. 그 사이사이에 겪었던 시련과 고통이 없었다면 이런 성취감이 있을까? 또 가족의 사랑이 내 곁에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가족들의 사랑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힘인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순례 여정 중에 함께 걸어주고 생명사랑운동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두 손 모아 깊은 감사를 드린다. 730,859보 그 속에는 가족과 주변 분들의 사랑과 신앙이 함께 있었다.

걱정말아요 365일

(마우리치오 미릴리 신부 지음 / 박미애 옮김)

‘걱정하거나 두려워 하지말라’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의 자비를 나타낸다. 성탄 축제를 지내며 맞는 새해 벽두에 선 우리에게 책의 제목부터 신선한 설렘과 희망, 위로와 용기를 느끼게 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두려움’이란 주제는 우리에게 조금 특별하다. 로마교구 청년 사목부 책임을 맡고있는 저자, 마우리치오 미릴리 신부는 어느 날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 젊은이와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두려움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는 책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시작된 글이 일주일로, 365일로 이어져 한 권의 책이 되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뿐 아니라, 테러와 전쟁, 연일 일어나는 상상도 예상도 못 했던 무서운 범죄에서 오는 공포와 허탈감, 죽음, 그리고 노후의 삶에 대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 등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까지 사람들은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무거운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이 두려움에서 더 옥죄고 움짱달짝 못 하게 한다.



베드로는 두려움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1요한 1,1)이심을 깨달았고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요한6,68)라고 고백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고,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마태14,27),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28,20)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 책은 성경 말씀 속에 이런 두려움을 똑바로 마주 보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매일의 묵상을 통해 알려준다. 날마다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희망의 책이다.

날마다 위로가 되는 말씀 한 구절, 하느님의 말씀에서 희망을 길어 올린 저자는 모든 이 특히 팍팍한 현실 속에서 삶의 자리를 찾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청년들을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워 준다. “저는 그 저 모든 세대, 모든 인간이 가진 두려움에 관해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으니깐요.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날마다 희망의 작은 불빛을 찾고 격려를 받으며 삶의 구체적인 이정표를 찾게 되길 바랍니다.”

■ 을해박해 순교 200주년 기념미사

12월 19일(월) 오후 7시 30분 계산 주교 좌성당에서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의 주례로 을해박해 순교 200주년 기념미사가 봉헌됐다. 미사에는 장신호(요한 보스코) 보좌 주교님과 9명의 신부님들이 함께 해주셨다. 대주교님은 강론을 통해 을해박해 순교자들이 부족했지만 서로 가진 것을 나눌 줄 알았던 모습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모습, 을해박해 순교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미사 중에 ‘을해박해 순교 200주년 기념 순교자 현양 독서감상문 공모전’ 수상자들의 시상식도 있었는데 시상식은 관장 최호철(안토니오) 신부님이 해주셨다. 수상자들에게는 부상도 함께 주어졌으며 미사 후 주교님들과 기념사진 촬영이 있었다. 이날 미사에 참여한 교우들에게는 을해박해 순교 200주년 기념 묵주를 선물로 주었다.



■ 희곡집 『을해박해의 순교자들』 발간

본 기념관에서 을해박해 순교 200주년을 기념하여 희곡집을 재편집, 발간하였다. 이 희곡들은 2002년에 교구에서 순교자 시복시성 운동을 추진하면서 연극 대본을 공모하였을 당시 출품되었던 작품들로 을해박해를 소재로 한 것이다. 을해박해 순교자들의 거룩하고 신심 깊은 모습을 되새기고 묵상하는데 도움을 주길 희망하며 기획위원회 한명수(미카엘) 위원이 재편집을 위해 힘써주었다.



배론성지

■ 국내성지순례

10월 16일(일) 원주교구 배론성지를 44명이 순례했고, 11월 20일(일)에는 부산교구 김범우 순교자 성지를 43명이 순례했다.

■ 대림 영성 특강

12월 3일(토) 오후 4시 한국교회사연구소장과 절두산 순교성지 주임신부를 겸하고 계시는 원종현 (야고보) 신부님께서 특강을 하셨습니다. 조선시대 때 천주교 박해는 한국 천주교회사에 국한된 시각이 아니라 한국사의 맥락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하시며 “우리 신앙선조들이 살았던 지난 과거의 삶은 결코 우리 자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지기를 소망하며 순교성인들의 후예답게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신앙의 빛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참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하셨습니다.



원종현(야고보) 신부님



송춘자(마르첼리나)

■ 교회사 강좌

10월 1일(토) 교회사 강좌는 영상강의로 대신했다. PBC ‘장하다 순교자, 신앙의 용사여!’에 방송되었던 병인박해 순교자들의 시복과 시성 편을 함께 보았고 11월 5일(토)에는 홍보위원회 송춘자(마르첼리나) 위원이 복자 이양등(베드로), 김종륜(루카), 허인백(야고보)에 대해 강의했다.

■ 제단체 야외행사

10월 20일(목) 바르바라 회원 37명은 배론성지에서 미사참례를 한 후 금월봉, 청풍문화재단지에 둘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성지순례위원회 임일랑(시몬) 위원이 바르바라 회원들을 위해 친절히 봉사해 주었다. 10월 27일(목)에는 운영위원들을 비롯한 제위원회와 단체 회원들이 병인순교 150주년을 기념해 명동성당과 절두산 순교성지에서 열리는 특별기획전을 둘러보고 왔다. 전시 안내를 담당하는 수녀님의 도움으로 교회사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여러분의 정성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9월 24일부터 2016년 12월 23일 기간 안에 후원회비를 납부해 주신 분들입니다.

평생 회원

故강봉순	故김경태	故김동철	故김문수	故김미정	故김상필	故김순이	故김순향
故김윤식	故김한주	故김희진	故박경상	故박노문	故박시호	故박 옥	故박종권
故박희봉	故배경진	故배계운	故백준용	故송삼도	故신윤식	故심간선	故오년수
故오봉선	故유용분	故유풍길	故이건호	故이경애	故이묘자	故이미현	故이순영
故이옥자	故이이분	故이종호	故정남재	故정외립	故정충원	故정호진	故최영민
故편흥식	故하병일	故허민호	故허 철	故황청순			
강석주	김경민	김기남	김상순	김수연	김숙엽	김애숙	김용옥
김정자	김필선	남희자	박노순	박종근	박주연	배 화	백승준
변추자	신남이	신혁출	오경순	오주환	오춘섭	우현주	윤종태
이금수	이대범	이민호	이소은	이송금	이재운	이희수	임상춘
정기식	정미경	정안나	정영자	조용도	최복선	황청옥	

가족 회원

강승화가족	권미정가족	권중채가족	금 찬가족	금 훈가족	김규원가족
김복자가족	김봉환가족	김영숙가족	김일성가족	김재흥가족	김재훈가족
김정강가족	김정현가족	김정환가족	김종업가족	김종운가족	김지수가족
김진희가족	김필여가족	류세종가족	류진춘가족	마윤현가족	문정숙가족
박경진가족	박기석가족	박민호가족	박병화가족	박보현가족	박상순가족
박용철가족	박용택가족	박자야가족	박재석신부가족	박화수가족	배병훈가족
백덕흠가족	백은영가족	백종희가족	서난향가족	서성교가족	손옥자가족
손춘자가족	신수영가족	신정향가족	신혜성가족	여경희가족	윤정순가족
윤현경가족	이강범가족	이경순가족	이경희가족	이남옥가족	이만호가족
이수자가족	이정숙가족	이종우가족	이준호가족	이찬기가족	이춘달가족
이태연가족	이화선가족	임말례가족	장효정가족	전남숙가족	전순자가족
전정숙가족	정계희가족	정명숙가족	정송이가족	정화숙가족	조경실가족
조기만가족	조영학가족	지유진가족	최연옥가족	하현달가족	홍태숙가족

홍해동가족 황수진가족 황원희가족

일반 회원

곽정돈 김분이 김분창 김일환 김지혜 김태희 박동립 성경훈 성진현 송재화
신경숙 신복순 유수생 이경희 이윤홍 이정호 이준영 이찬영 임영자 임윤자
장정순 전기엽 전화선 제현희 최해근 하말연 황순자

※ 성함이 누락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덕정순교자현양사업 후원회

관덕정에서는 순교자현양사업과 순교 신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교 현양 운동과 각종 유물의 발굴, 조사, 연구, 전시, 보관하기 위한 노력에 후원해 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 가입방법

-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 053)254-0151번이나 0159번으로 전화를 주셔서 성함과 세례명, 본당과 주소지, 연락처 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 방문하셔도 됩니다!
- 관덕정순교기념관을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평생회원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별다른 서류가 필요치 않으며, 명함판 사진(없으시다면 얼굴이 잘 나온 일반 사진도 가능) 2매를 준비 해 오시면 됩니다.

관덕정순교자현양사업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회원님께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후원회원들을 위한 생미사와 세상을 떠난 평생회원들을 위한 위령미사가 함께 봉헌됩니다. 망자가 되신 분을 평생회원으로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이외에 평일미사에 위령미사를 3대 봉헌해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께 순교자 현양 및 신심운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관덕정순교기념관의 소식이 담긴 회보를 3개월마다 보내드립니다. 순교기념관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초대합니다. 연말 세금공제를 위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후원금 납입방법

- 납부계좌 : 대구은행 006-10-011249 (예금주 : 대구관덕정순교기념관)
 - ※ 회비를 송금해 주시는 분들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 송금 후 꼭 사무실로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 자동이체 : 거래하시는 은행에 거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가셔서 저희 대구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신청이 됩니다.
 - ※ **자동이체 신청 후에도 사무실로 꼭 연락주십시오.**
 - ※ 자동이체 신청시 일반회원 : 월 2,000원
 가족회원 : 월 5,000원

■ 후원회비

- 일반회원 : 연 20,000원
- 가족회원 : 연 50,000원
- 평생회원 : 연회비 없이 일백만원 이상을 기탁

- 관덕정 미사안내 -

- 화요일 : 오전 10시
- 금요일 : 오후 3시(순교자현양미사)
- 토요일 : 오후 5시(주일미사)

※ 첫째 주 토요일은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